

# 해남군, '2030프로젝트' 추진 가속도

### 기회·교육특구 지정...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인구 유입 등 지역 소멸 위기극복 기대

해남군이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에 잇따라 지정되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2030 프로젝트'의 주축으로 7대 사업을 정하고 민선 8기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주요 7대 사업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 지정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복합해안레저관광도시 거점 조성 ▲KTX해남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해남군은 데이터센터파크 66만㎡(20만평)와 해상풍력 배후단지 20만㎡(6만평) 총 2개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국내·외 굴

지의 대기업들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40MW급 데이터센터 2동, 총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반경 10km 이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과 166만㎡(50만평) 규모의 RE100 산업벨트도 들어설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1동을 2025년까지 설립하고 2027년까지 나머지 2동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선도 AI데이터센터가 건축허가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화원산단의 해상풍력배후단지는 목포신항 및 신안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대인 99만㎡(34만평) 규모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기회발전특구와 더불어 양대특구로 불리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후속 조치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해남군의 교육발전특구는 '해남으로 돌아오는 그린인재 육성'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에서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분야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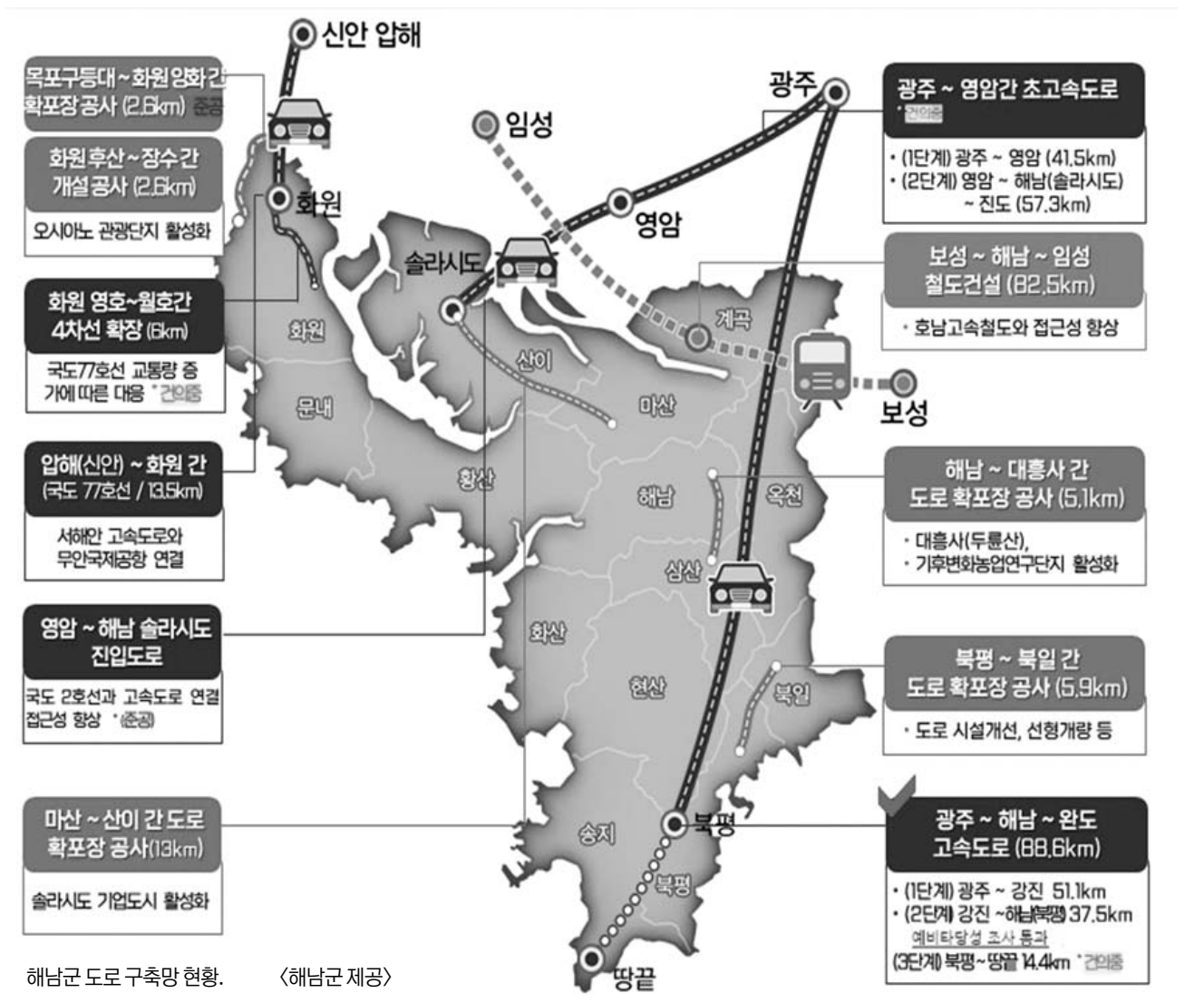
지난 8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2026년 준공 예정인 광주-강진 1단계의 종점인 강진군 작천면에서 해남군 북평면까지 38.9km 구간으로, 사업비 1조5천966억원이 소요된다. 2034년 완공 예정이며 개통 시 해남에서 광주까지 40분대로 줄어들게 된다.

해남군은 2030프로젝트를 통해 KTX의 해남노선의 정부 철도계획 반영도 건의하고 있다.

2025년 보성-해남-임성간 철도 개통, 2027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 등이 상당히 진척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이면 해남에도 최초로 철도가 개통된다.

해남 최초의 철도인 보성-임성리간 8.25km를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는 시설공사 완료돼 10월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은 "지역소멸위기 지역인 해남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인구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여기에 교통망까지 대거 확충되면서 땅끝이 아닌 유라시아의 시작, 해남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 기자



## “쌀케팅 추진” 영암군, 쌀값 하락 대응 ‘총력’

### 재고 물량 점검·쌀 소비 촉진 범군민운동 전개

영암군이 2024년산 벼의 본격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 방지, 쌀 판매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5천388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 추세에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56.4kg로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영암군은 최근 농협 영암군지부, 영암교육지원청과 영암초등학교 앞에서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영암군은 최근 농협 영암군지부, 영암교육지원청과 영암초등학교 앞에서 쌀 소비 촉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열었다. 영암군은 지역농민단체와 함께 한

영암군은 지역농민단체와 함께 한

서울과 광주의 직거래장터에서 영암 쌀을 포함한 무화과·고구마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판매해 1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밖에도 지난달부터 쌀 마케팅의 줄임말인 ‘쌀케팅’의 하나로 ‘영암 쌀 소비 촉진 범군민운동’을 전개해 전국에 1만5천포를 판매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케팅을 지속 추진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기구를 운영해 농민들의 값진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깔끔·부드러운 맛” 강진 전통막걸리 ‘인기’

### 병영·도암주조장 생산...국내 최초 유기농식품 인증 막걸리

최근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 병영주조장, 도암주조장에서 생산한 막걸리가 전통주의 명성을 이어오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막걸리에는 다른 술에 비해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열량이 낮고 유산균과 효모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옛 붉은 벽돌로 쌓은 주조장 굴뚝이 60년 이상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병영주조장은 김영희 대표가 선전 식품명인(제1호 김견식)의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다.

병영 설성막걸리는 국내 최초로 막걸리 분야 유기농식품 인증을 받았으며, 강진군 병영면 한들평야에서 생산된 쌀과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를 사용해 텃밭하지 않고 묵감법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도암주조장에서 생산되는 병영막걸리

도암주조장에서 생산되는 병영막걸리

는 뽕나무의 뽕잎을 건조 후 찌서 200~300도에서 20분 가량 볶아 녹차와 같은 방법으로 8일간 발효시켜 종전의 텃밭한 맛을 배제, 맛이 시원하고 뽕잎 향이 그윽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강진군 도암면 간척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직접 재배한 뽕잎 및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물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해 전통기법으로 기능성막걸리를 생산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정 강진의 쌀과 물로 정성껏 빚어 맛을 내는 강진산 막걸리가 지역 특산품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막걸리로 문화 자제를 전파하는 전통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병영주조장 (061-432-1010), 도암주조장 (061-432-00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정영록 기자

## 신안군, 함께 기계 수확 도입 연시회

### 콤바인 수확·대체 품종 ‘하니울’ 선택...노동력 97% 절감

신안군은 “최근 비금면에서 함께 기계수확 연시회(사진)를 열고 콤바인을 이용한 함께 수확 가능성을 제시해 농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참가는 익으면 스스로 떨어지는 특성을 지녀 기계수확이 매우 어렵고 대부분 인력으로만 수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 중 하나다.

이에 신안군은 기계수확이 가능한 품종과 재배법을 적용한 함께 수확 전

과정 기계와 시범단지를 비금면에 20ha 규모로 조성했으며 이번 현장 연시

회를 통해 수확 과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시범단지에서 재배한 함께 품종 ‘하니울’은 2021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다수확 품종으로, 내탈립성이 강해 기계화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수확기가 빨라 신안군 대표 작물인 시금치의 후작물로도 재배가 가능하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인력수확보다 97%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는 함께 기계화 재배면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함께 수확 전 과정 기계화 재배면적 확대와 단지조성을 위해 기계화에 알맞은 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농가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신안=양훈 기자

## 영광군, 내년도 신규 시책 발굴 박차

### 160건 발굴...미래 성장·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영광군이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갖춘 내년도 신규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경섭 영광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에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발전을 실현하는 시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160건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시책은 ▲미래모빌리티 총동력 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수소 산업 전주기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 ▲1·4인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탄소중립 미래농업수도 영광 육성계획 수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 ▲명품 복숭아 시설재배 수출 전문단지 육성 등으로 미래 동력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이다. 또한 ▲파크골프장을 연계한 자연휴양림 조성 ▲덕흥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능형 경로당 구축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시책들이 제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시책들은 사업 내용을 보완하고 예산반영 등 검토를 거쳐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경섭 권한대행은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완도군, 인플루엔자 접종 돌입

완도군은 18일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생애 첫 접종 어린이 대상을 시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바이러스 변이가 잘 일어나 매년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1회 접종 대상자는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력이 2회 이상 있는 생후 6개월 이상-13세 어린이다.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는 보건기관과 위탁의료기관에서 20일부터, 어린이 1회 대상자 및 임신부는 10월 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이외 임신, 성인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10월 11일, 보건기관은 10월 28일부터 실시된다. 접종은 별도의 예약 없이 이뤄진다. 접종비는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은 무료이며 14세 이상 50세 이하 성인은 유료다. /완도=윤보현 기자

## 무안군 청년센터, 복합문화센터서 새출발

### 메이커 스페이스 등과 시너지 효과 기대

무안군은 18일 “무안군 청년센터와 청년상가가 무안 전통시장에서 무안군 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청년센터와 청년상가를 9월까지 이전 완료해 영화관, 아동·청소년 시설, 메이커 스페이스 등 복합문화센터의 시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청년활동 및 창업 공간을 구축할 계

획이다. 청년센터에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와 청년들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홀, 동아리실, 청년쉼터 등 공간을 제공하고 10월부터 맞춤형 청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무안군은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을 위해 9월까지 신규 청년상가

5개소를 모집해 주변 시설 및 상권과의 연계,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상가 모집은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무안군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상가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사람은 미래성장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